아파트 전세난 확산에 오피스텔도 '들썩들썩'

광주 전분기比 전·월셋값 0.19%·0.05%↑
전월세 전환율·수익률 전국 평균 웃돌아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작된 전세난이 확산하면서 광주지역 오피스텔의 전·월셋값도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광주의 오피스텔 전셋값이 0.19% 올라 전분기(-0.33%)보다 대폭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1-2인 가구 증가와 주택 대체제로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부터 서울시, 6대 광역시, 세종시 및 경기도 등 9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월 오피스텔 매매, 전세, 월세 등 가격동향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전국 오피스텔 전셋값은 재작년 4분기 0.06%에서 지난해 1분기 0.12%로 상승 폭을 키웠다가 2분기 -0.04%로 하락했으나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3분기 0.27% 상승으로 반등했고 4분기 0.62%로 상승 폭을 더 키웠다.

수도권은 작년 4분기 0.70% 올라 상승 폭이 전분기(0.35%)의 2배에 달했다.

부동산원은 "저금리 유동성 확대, 집값 상승 등의 현상에다 전세 매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오피스텔 전셋값이 대폭 올랐다"고 분석했다.

광주지역 오피스텔 월세도 작년 4분기 0.05% 올라 전분기(-0.61%)와 비교해 상승 폭을 키웠다.

전국의 오피스텔 월세도 재작년 4분기부터 작년 2분기까지 -0.21%, -0.12%, -0.26%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작년 3분기 0.07%로 상승 전환한 뒤 4분기 0.25%로 상승 폭을 더 키웠다.

부동산원은 "아파트 전세, 오피스텔 전세 상승으로 전환 및 유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월세도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작년 4분기 광주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과 오피스텔 수익률은 전국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다.

지난해 11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산정한 결과, 광주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은 5.57%로 전국 평균(4.85%)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주 오피스텔 수익률은 6.24%로 전국 평균(4.77%)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전셋값이 매매를 따라 잡는 형국이다.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작년 3분기 -0.06%에서 4분기 0.05%로 상승 전환했다. 다만,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입에 따른 일부 투자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분위기는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부동산원은 분석했다. /박은성 기자

"수익·건전성 갖춘 리딩뱅크 도약에 박차"

광주은행 2021년 시무식 개최…비대면 진행

광주은행이 2021년 한해 지방은행 최고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갖춘 리딩뱅크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광주은행은 4일 신축년 새해를 맞아 임직원들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한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무식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전 영업점과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졌으며, 본점 KJ상생마루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송종욱 광주은행장의 모습이 실시간 송출됐다.

이날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화상 캠을 통해 2021년 새설계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의한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 등 치열해진 경쟁환경 속에서도 내실있는 질적 성장과 체질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의 성장을 다짐했다.

더불어 ESG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포용금융과 생산적금융에 주력, 수익성과 비용효율화를 통한 책임경영 기반 구축, 혁신을 위한 명확한 방향, 선제적인 자산건전성 관리, 활력있는 조직 조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세부 실천방안으로 ▲공공의 이익과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포용금융과 생산적금융 확대 및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강화 ▲각 영업 부문별 수익성과 비용 효율성에 근거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 및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영업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정립과 디지털역량 강화로 대면 및 비대면채널 영업을 동시에 아우르는 혁신전략 구축 ▲After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자산건전성 관리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송 은행장은 "2020년은 지역에 닥친 위기를 지역민과 함께 이겨내고 지역 상생발전을 이뤄내고자 전 임직원이 고군분투해 온 한해였다"며 "2021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와 디지털 금융산업의 치열한 경쟁에 맞서 변화와 혁신을 과감히 실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박은성 기자

광주은행이 4일 2021년 새해를 맞아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치뤄진 시무식에서 송종욱 은행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기업 투자 통해 경제 활력 회복 앞장"

이한철 목포상의 회장 신년사

"신축년 새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속적인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이한철(사진)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다행히 올해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수주 전망이 밝아지는 등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목포권이 고용위기지역으로 1년 추가 연장된 가운데 국내 각 기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플러스로 예측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 회장은 지역경제의 주춧돌이 될 목포상공회의소의 새해 구상을 피력했다.

이 회장은 "'종합발전 기본구상 용역'이 시행되면서 전남 서남권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과제 발굴에 노력해왔다"면서 "'세계섬엑스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남해안 섬 벨트 4개 지자체(목포·완도·진도·신안)와 협약을 체결해 엑스포 유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전남도의 블루이코노미 선언에 따른 해양·관광·물류 등 관련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1위'답게 목포권에 투자가 이어지고 지역경제 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아직은 어렵지만 신축년 새해는 슬기와 지혜로 힘차게 출발해서 일상의 행복을 느끼는 새 역사를 써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자"고 당부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김태옥 신임 한전 광주전남본부장 취임

"공감·배려 조직문화 기반 에너지 전환시대 능동적 대처할 터"

신임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장에 김태옥(58·사진) 본사 기술기획처장이 취임했다.

김 본부장은 4일 "전 직원들 모두 기본원칙 준수, 공감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다가오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변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부서간 협업을 통해 현안 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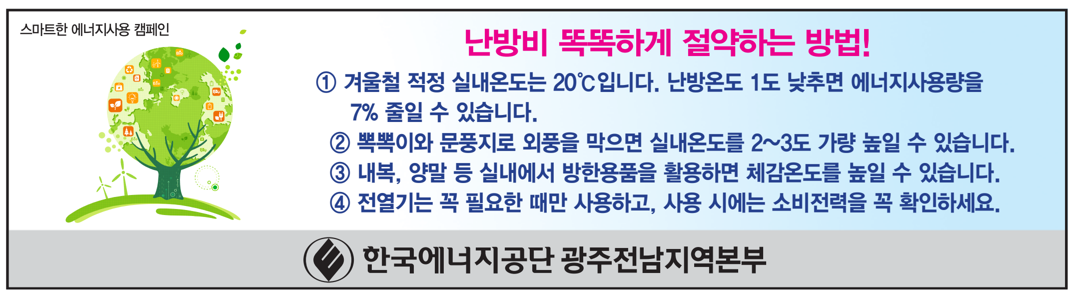
김 본부장은 본사 기술기획처장 및 계통계획처 계통계획실장 등 한전의 주요보직을 두루 맡아 탁월한 업무 능력과 추진력, 조직을 아우르는 리더십 등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계통계획실장으로 재임하면서 변전설비 인프라 구축 및 건설 사업에 대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박은성 기자

이상현 신임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장 취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조기정착 지원 강화 등 노력"

신임 이상현(53·사진)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장이 취임했다.

4일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에 따르면 이 지사장은 호남지역(광주, 전남·북, 제주) 8천700여 개소의 건설사업장에 대한 공제부금 납부 관리와 지역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금 및 대부금 지급, 각종 복지사업 등을 총괄한다.

이 지사장은 전주 영생고,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입사해 경영전략본부장, 경기지사장, 대구지사장 등 기획 및 사업부서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평소 소탈한 성격으로 동료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지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호남지역의 건설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주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은성 기자